

“고량주 대신 사달라”… 횃집 대상 노쇼 잇따라

저녁시간대 단체 예약 후 고가제품 구매 유도
제주서 5개월간 97건·피해금액은 33억원 달해
대포폰·대포통장 등 사용해 경찰 수사망 피해

제주에서 횃집을 대상으로 한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단체 예약을 빌미로 고가의 술을 특정 거래처에서 구매해달라는 전형적인 사칭 노쇼 사기 방식이다.

제주에서 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일 한 고객의 단체예약 전화를 받았다. 저녁 7시쯤 10명이 참석할 예정인데 식사에 곁들일 400만원 상당의 고가의 술을 특정 거래처를 통해 구매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인터넷에 고객이 요구한 주류를 검색했지만 나오지 않았고, 후불 결제를 하겠다고 하자 고객은 거절했다. 이후 예약자와 거래처 모두 연락이 두절됐다. 다행히 A씨

는 돈을 입금하지 않아 피해를 면할 수 있다.

A씨의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음식점 업주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모두 참치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로, 저녁 시간대 단체 손님 10명을 예약하며 고량주 등 주류 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2~3일 이들 사이에 같은 고객으로 추정되는 이의 연락은 받은 음식점은 제주시 노형동과 연동, 아라동, 조천읍 등 최소 4곳이다. 다행히 이들 모두 예약을 거절하거나 입금하지 않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칭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범죄조직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운영하는 등 수사망을 피해 피의자 특정에는 더욱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도내 사칭 노쇼 사기 신고건수는 총 97건이다. 피해금액은 약 33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사칭 노쇼 사기는 음식점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예약을 빌미로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선구매·입금하면 이후 음식값과 한 번에 결제하겠다는 안심을 준다.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한다.

최근에는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신뢰를 산 뒤 범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제주에서도 소방관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가 잇따랐다. 지난 5월 말 기준 소방관 사칭 피해는 9건, 피해액은 7350만원에 달했다.

노쇼 사기와 관련해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국번 없이 1394)’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상담한다. 입금하지 않아 피해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미수 의심으로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은 통합대응단 자체 시스템에 입력된다.

하지만 사칭 노쇼 사기 조직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추적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칭 노쇼 사기 확률이 높아 절대 입금하면 안 된다”며 “대량 주문이나 대리구매의 경우 반드시 해당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4일 오전 9시58분쯤 무너져 내린 서귀포시자치경찰대 건물.

노후 건축물 하단 붕괴… 인명피해 없어 서귀포자치경찰대 건물 일부 장맛비로 무너져

서귀포 자치경찰대 건물 하단의 석축이 붕괴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4일 제주자치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서귀포자치경찰대 3층 건물 하단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과 서귀포시, 경찰 등은 주민 7명을 대피시키고 안전 통제를 실시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노후 건축물이 최근 내린 장맛비로 인해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되며 관계당국은 정확한 붕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교사 무더기 고소 가해자 엄벌해야”

제주교사노조 3일 기자회견
검찰에 관련 수사·기소 촉구

제주에서 한 학부모가 교직원 10여명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던 사건과 관련해 도내 교원단체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 3일 제주시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들어간 지 1년이 넘도록 검찰의 기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제주교사노조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학부모 A씨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자녀의 초등학교 1~6학년 당시 담임교사 전원과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 등 모두 12명을 아동학대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일이다. A씨는 자녀의 건강 악화가 학교생활



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무더기 고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청, 교육부 등에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 서류에는 교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발언이 담기기도 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선 교직원에 대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들을 고소한 A씨는 협박·무고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경

찰은 지난해 9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제주교사노조는 이날 제주시검민원실을 찾아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주지검 측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러 늦장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늦추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길거리서 동포 흥기 상해 경찰, 특수상해 혐의 조사

제주도심의 한 길거리에서 동포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호텔 인근 길거리에서 같은 국적의 30대 중국인 남성 B씨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팔에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단체채팅방에서 강제퇴장을 당해 화가 나 B씨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서 챙겨 온 흥기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추적이 나섰고 사건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전 2시쯤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소정기자

테트라포드 위 건넌 낚시객 추락해 숨져

70대 낚시객이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제주해양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27분쯤 제주시 도두2동의 한 포구에서 70대 남성 A씨가 테트라포드 아래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낚시를 하던 A씨는 테트라포드 위에서 이동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변인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탐동 인근 해상서 어선 좌초… 6명 전원 구조

제주 탐동 해상에서 6명이 탑승한 어선이 좌초됐으나 승선한 이들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6분쯤 제주시 탐동 월파방지 방파제 내측 해상에서 성산선적 연안연승선적 A호(13t)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구조대 등을 급파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A호는 선체가 오른쪽으로 40도 가량 기울어진 상태였으나 선체 파손은 없는 상태였고 승선원 모두 무사한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기울임 방지를 위한 고박조지와 에어밴드·연료밸브 봉쇄, 리프트백 설치 등을 하며 구조 작업을 진행했으며, 구조대원이 A호에 승선해 이초 전까지 선내 침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해경은 만조시간(오후 1시 42분)에 가까워지면서 어선 선체 기울기가 완전히 회복되자 해경에서 섬외한 해양재난구조선에 예인줄을 연결해 A호를 암초에서 빠져나오게 했다. 현재 A호는 성산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쉽게 높이조절되는 굴고리 굴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 안파고정판 안파밴드 굴고리 작업세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곤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그랜드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보청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상충돌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이로서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란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서사란 사거리
제주시버스터미널

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맏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홍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